DENTAL NEWS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

부정의료행위자 및 부정기공물 신고센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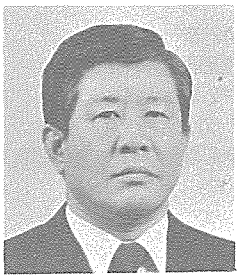
돌팔이 신고는 151-2282!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지역에 부정치과의료행위자, 즉 일명 돌팔이들의 부정의료행위가 급증하여 건전한 의료질서와 국민구강보건을 크게 해치고 있어 그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치과의사회에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 부정의료행위자의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서치의 박상남회장은 지난 13일 치과관련 전문지와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자신의 현안문제인 부정치과의료행위자에 대한 규제강화가 새로이 검토 시행되어야 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행정관계자 및 검찰관계자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우선 서울시치과의사회 사무국에 부정의료행위자 신고창구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한 『부정의료행위자 척결은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개조가 관건인 만큼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펴 이들에게 치료받는것이 얼마나 피해가 크고 위험한 일인가를 인지시키고, 부정의료행위자 신고전화번호가 국민들의 의식속에 자연스럽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을 비추면서 앞으로 관련보건소와 소속경찰서와도 긴밀한 연계체제를 구축할것임』을 밝혔다.

한편 서치의 오종우 공보이사는 서치의 사무국에 설치된 신고 전화번호 151은 사서함번호이며 『2282』는 『이둘팔이』로 발음되어 『이돌팔이』라는 발음과 비슷하여, 기억하기 쉬운점을 고려하여 선정했다고 전하고, 이같이 신고전화번호와 간단한 요령을 스티커로 제작하여 시민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 부착하여 홍보효과를 높여서 본 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상남 회장〉

돌팔이를 신고합시다

치과돌팔이 신고는

151-2282 (이둘팔이)로!

* 자동전화 신고요령 *

151번을 누르신 다음 "사서함번호나 열쇠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라고 안내하면 2282번을 눌러 주십시오.

전 화 신 고 안 내 말 씀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건전한 의료질서와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해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지역에는 부정치과의료행위자, 일명 돌팔이의 행위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는 서울특별시의 협조로 치과돌팔이(이둘팔이) 신고창구 151-2282를 개설하였습니다.

시민여러분!

사회질서확립과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주저 마시고 주변의 치과돌팔이들을 본 신고창구에 아래 요령에 의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첫째, 신고하시는 분의 성함, 전화번호,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돌팔이 행위자의 성명, 나이,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인근건물 주위의 특징 등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돌팔이 검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본 창구에서는 신고하시는 분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을 약속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라며 그런데도 주저하게 되신다면 가까운 치과의원 원장님을 찾아 신고를 의뢰하는 방법도 권장하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